讀者注文取材

発明人도 中小企業人이될수있다

三千里技術投資(株)

精密化學 電子등 投資
經營能力 提高에 힘써

三千里技術投資(株)(대표 金立三)는 三陟炭座가 주축이 되어 여러명의 出資로 설립됐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제정과 店頭시장의 제도화는 창업투자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여건조성을 계기로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나야 튼튼한 산업구조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金사장은 창업투자의 여건이 마련된 이상 三千里技術投資의 할일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돈보다 지혜를 나누어 드립니다」를 三千里技術投資의 모토로 삼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金사장은 자금에 앞서 경영능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틀을 갖추어주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에 경영능력을 접목시켜준 다음 투자로 기업을 성공시킨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金사장은 이를위해 「인간성장경영」을 경영방침의 제1조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三千里技術投資의 사장·전무와 직원 5명(여직원 2명포함) 등 7명의 구성원들은 창업회사에 지혜를 줄수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사장은 三千里技術投資의 자본금은 30억원으로 美國 벤처캐피틀에 비교하면 중규모에 해당되며 앞으로 정밀화학·기계·전자의 3개부문에 주안점을 두어 창업투자사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정밀화학 1건, 전자 2건, 기계 3건등의 사업을 검토중에 있다. 金사장은 창업이 어려운 것인만큼 창업투자회사들이 투자를 한뒤 안정궤도에 선다음 지분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가 뿌리를 내리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三千里技術投資는 「투자기업의 성장을 통한 공동번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아래 새로운 중소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연락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의 6.

전화 783—7691~6.

韓國企業開發金融(株)

외국 VC社와 업무제휴
尖端기술 企業化 注力

韓國企業開發金融(株)(대표 朱一)은 中小企業銀行의 전액출자로 설립됐다.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 회사는 이같은 성격에 걸맞게 우수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中小企業銀行 부행장 출신의 朱一사장을 비롯, 企銀에서 중소기업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로 짜여진 23명의 임직원조직도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다.

『첨단기술 및 신기술의 기업화와 수출산업·수입대체산업 부품산업등의 발전에 앞장서는 중소기업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30여년간의 은행생활을 청산하고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을 맡은 朱一사장은 은행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알찬 중소기업의 설립 및 지원에 정열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 경영의 포인트를 두겠다고 덧붙인다. 이를 위해 韓國企業開發金融은 업무능력 배양을 목표로한 교육활동도 적극 전개중이다.

○…… 中小企業 創業投資 및 相談會社들이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 發明人의 中小企業設立에 큰 도움……○
○……을 주게 되었다는 내용이 本誌 1月號(21p)에 報道되면서 一般讀者들의 자세한 內容을 묻는 問……○
○……議가 빗발치고 있다. 또 紙面 사정상 1月號에 名單만을 紹介한 관계로 각 社의 좀 더 자세한 內……○
○……容을 報道해 달라는 發明人들의 注文도 殺到하고 있다. 단 1面의 報道가 이번처럼 一般讀者 및……○
○……發明人들의 關心이 集中되었던 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에따라 本誌 編輯室에서는 이들의 注文……○
○……을 받아들여 우선 1次로 中小企業 創業支援法 第11條에 의해 設立된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 6個……○
○……社와 中小企業 創業支援法 第12條에 의해 設立된 中小企業相談會社 2個社를 紹介하기로 했다. ……○
○…… 本誌 編輯室의 制限된 與件으로 이번 號에 紹介되지 못한 釜山創業投資(株)(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2동 257—2; 전화 부산 803—0670)를 비롯한 中小企業 創業投資·相談會社 및 租稅감면 規……○
○……制法 第18條의 2에 의해 設立된 新技術事業 投資會社들은 추후 한데 모아 紹介하기로 했다. ……○
○……<編 輯 者 註>……○

전직원의 상담요원화 방침에 따른 연수는 회사설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교육성과를 체크하는 시험을 볼 정도로 강도가 높다. 이 회사는 앞으로 임직원들을 중소기업관련 대학원에 진학시키는 한편 모두가 경영지도사 또는 경영진단사 자격증을 취득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의 벤처캐피틀 회사와 업무제휴는 물론 공동투자도 추진하고 있읍니다.』

朱一사장은 日本벤처캐피틀 회사와의 업무제휴가 2월까지 이루어지게되어 美國을 비롯 유럽쪽 회사들과도 손을 잡아 정보교환·업무협조·공동투자·연수등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다.

자본금 50억원 규모로 출범한 이 회사는 연내 50억원을 증자, 1백억원의 자본금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중소기업을 발굴, 기업화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中小企業銀行을 통한 융자지원을 알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誠實」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韓國企業開發金融의 상담창구는 회사출범이후 계속 붐비고 있어 앞으로 알찬 결실이 많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연락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0.

전화 679—2361~4.

國民技術金融(株)

자본금 50%까지 融資
國民銀서도 支援혜택

國民技術金融(株)(대표 張榮根)은 國民銀行의 전액출자로 설립됐다. 「새기술 새기업의 힘이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 회사는 첨단기술의 창달과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진흥에 기여하는 투자회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보이면서 정초부터 활기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1일 창업된뒤 현재까지 36명의 전문인력을 채용, 투자회사로서의 기반을 갖췄다. 또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연수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의 발굴과 창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담당자의 자질향상이 우선돼야한다는 회사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1년동안 모든 임직원은 일하면서 연수하는 苦行을 쌓게될 것이라고 張榮根사장은 설명했다.

國民技術金融은 國民銀行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이 회사와 손잡게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國民技術金融에서 직접 창업에 필요한 투자지원이 있을 뿐 아니라 國民銀行에서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고 國民리스에서 리스지원의 혜택을 받게되는 잇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창업투자의 우선 조건을 3개 요소에 두고 있다.

기술 및 상품의 우수성을 가진 기술집약적기업, 국산화 및 수입대체효과가 높고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 수출지향적 기업등이 그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창업희망자가 이 회사를 찾게되면 자본금의 50%까지 지원받게되며 창업회사가 독자적 경영수준에 이르게될 때 이 회사는 소유주식을 기존주주 또는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 주주로서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

창업회사는 특히 5억원 이내, 상환기간 10년이내에서 담보부 또는 무담보부 사채발행이 가능한 점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가운데 하나다.

『실적보다는 씨뿌려 가꾸는 자세로 알찬 벤처기업의 발굴에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張榮根사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소기업의 발굴과 그 육성에 國民技術金融이 礎石이 되겠다고 강조한다.

연락처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5의 5.

전화 313—2772.

祐信開發金融(株)

鑛業·情報 관련 서비
스업投資…安定주력

祐信開發金融(株)은 鳳鳴그룹의 亞細亞시멘트공업이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범한 창업투자회사.

亞細亞시멘트와 亞細亞製紙등을 맡고 있는 李秉茂사장(44) 이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단추의 의미나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의 뜻이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20억원쯤 증자하고 알차고 보람있는 업종 10여건을 골라 15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밝힌다.

李사장은 사업 첫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적엔 지나치게 연연해 하지 않겠다고 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중 제조업, 광업, 공학에 관련되는 서비스업, 조사 및 정보에 관련되는 서비스업의 창업자를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확실하기만 하면 과감한 투자도 할 방침이라고 말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행정관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자를 우선 투자대상으로 정해놓고 있기도 하다.

『융자업무도 취급, 투자한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해 단기운영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물론 담보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창구쯤으로 알면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투자한 회사의 사업이 잘안되면 직접 뛰어들 각오도 돼있지만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안정」에 바탕을 둔 성장을 추구해 갈 방침이라고 李사장은 설명한다.

그래서 이 회사직원들은 경영능력을 키우고 구체적으로 창업회사 업종에 전문지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李사장은 창업투자에 대한 근본인식이 잘안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락처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전화 796—2051~4.

발명하는 국민되어
복지국가 건설하자

韓國技術振興(株)

有望사업出資 중점
新技術 賣買알선 업무도

韓國技術振興(株)(대표 安泳玉)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창업투자회사로 과기처산하의 8개 연구기관이 출자하고 있다. 지난 74년 당시 KIST(현 KAIST·韓國科學技術院)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이 회사는 82년에 기계연구소·에너지연구소·전자통신연구소·전기연구소·화학연구소·표준연구소·인삼연초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새로 출자했으며 웨스팅하우스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새로 참여했다.

韓國技術振興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학계나 발명가의 개발기술을 기업화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신기술의 기업화에는 해외로부터의 선진기술도입도 포함되어 있으며 직접투자가 아닌 신기술의 매매알선도 사업의 일부분으로 계속되고 있다.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기업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韓國技術振興의 설립 목적이었읍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자체사업개발에도 주력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외부에서 유망사업에 대한 출자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해 기업화로 결실을 맺도록 하는 사업도 같이 펼치게 됩니다.』

安사장은 회사의 설립배경과 올해부터의 사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韓國技術振興은 南海窯業·韓國非鐵粉末·韓國光通信 등 5개社에대한 출자분은 이미 회수했고 柳韓化學·五洋精密化學·大韓特殊가스등 6개社에 출자하고 있는등 11개社의 기업화 실적을 갖고 있다. 또한 노우하우의 매매알선도 15건에 이르고 있다. 安사장은 출자회사의 연간매출액이 5백억원, 고용효과가 1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술집약형의 전문중소기업 창출은 산업구조 고도화의 모델이기도 하지요. 기업화의 출자건수보다는 質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알찬 기업의 탄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安사장은 올해 4~6건의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술의 기업화가 안정된 기반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창업의 활성화가 요망된다고 安사장은 강조했다.

연락처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의 1.

전화 962—8197.

韓國技術投資(株)

新技術개발企業에 投資 銀行융자도 알선

韓國技術投資(株)(대표 徐甲洙)는 기술개발자금지원업체인 韓國技術開發이 설립한 창업투자전문 벤처캐피틀회사이다.

韓國技術開發의 子會社로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회사의 특징적 면모로 꼽힌다.

『기술을 바탕으로한 기업육성에 주력, 알찬 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 힘쓸 방침입니다.』

韓國技術開發에서 일하다 韓國技術投資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徐甲洙사장의 설명이다. 그의 말처럼 이회사는 지난해 12월초 별도법인으로 독립한뒤 현재 외국과의 합작투자로 기술위주의 기업을 창업하는 투자계획 1건을 확정해 놓고 있다.

버너생산업체인 엘코코리아의 설립계획이 그것이다. 현재 당국의 정식 인가를 신청중인 이 회사는 자본금 50만달러 규모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설립에는 스위스 엘코社가 50%, 국내 高信熱管理가 25%, 韓國技術投資와 韓國技術開發이 공동으로 25%를 투자하게 된다.

이처럼 활기찬 움직임을 전개중인 韓國技術投資는 유망신기술개발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책임감 있는 경영진 구성과 부가가치창출 및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기업설립에 투자한다는 경영정책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이 마련되면 韓國技術投資는 직접 투자는 물론 母기업과 금융기관의 융자를 적극 알선, 직접 및 간접으로 신설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창업투자회사와의 공동투자와 외국 벤처캐피틀회사와의 합작투자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이 회사의 독특한 경영구상으로 꼽힌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자본을 동원해 벤처투자를 해도 수익력이 있음을 실증해 보이겠읍니다.』

금융업에 진출키 위한 교두보를 확보키위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창업투자전문회사로 韓國技術投資를 키워보겠다고 徐사장은 강조한다.

연락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의 1.

전화 783—7601.

天祥企業相談(株)

創案者·투자자·창업 支援社알선……創業밑거름

天祥企業相談(株)은 中小企協中央會에서 10여년동안 상담업무를 맡아오던 鄭輝世씨가 설립한 창업상담회사다. 이 회사에서는 中央會 상담과장을 지낸 鄭사장을 비롯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상담업무를 수행하고있다.

지난해 9월 창업돼 6개월동안 상담업무를 해온 이 회사는 구성원의 특질과 상공부등록 제1호의 창업상담회사인 점을 자랑한다.

鄭사장의 경력이 회사의 성격과 잘어우러질뿐아니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12조에 의거해 설립된 상담회사중 가장 먼저 등록된 영예를 얻었기 때문이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계획서작성·자금조달·인허가서제출·시장조사등 모든 부대업무를 감당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같은 업무를 우리회사가 대신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鄭사장은 회사의 성격을 이처럼 설명하면서 기술을 개발한 창안자와 투자자 및 창업지원회사를 연결해줌으로써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87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이중에서 기술보유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달 주식회사 파이너스를 출산하는 보람을 얻었다.

설립등기를 끝낸 이 회사는 전자계임기를 생산키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天祥企業相談은 이같은 활동외에도 공장이전에 적합한 부지선정, 자금알선등에 따른 상담업무도 수행한다. 창업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활동해 오는동안 상담회사의 역할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읍니다.』

鄭사장은 이해관계가 엇갈려 아이템을 가진 사람과 투자자가 순조롭게 연결되지 않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털어놓는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알찬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번창의 밑거름이 되기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연락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의 10.

전화 782—5240.

韓國벤처相談(株)

컴퓨터도입 업무電算化 投資會員制 운영

韓國벤처相談(株)(대표 金仁澤)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시행된뒤 가장 먼저 설립된 창업상담회사이다. 벤처캐피틀회사인 韓國開發投資와 韓國技術振興에서 투자심사경험을 쌓은 金사장을 비롯한 3인의 전문인력이 상담회사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해 8월 6일 회사를 설립했다.

이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회사는 지난 7개월동안 1백건이 넘는 상담실적을 올렸다.

이 가운데 9건을 설정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용역사업 추진을 통해 2개 중소기업의 창업을 성사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韓國벤처相談은 이처럼 신기술개발등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창업희망자들을 창업관련금융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과 연결시켜 중소기업이 설립되도록하는 지원사업을 전개중이다. 또 기존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나 융자의 알선은 물론 신규사업정보제공 시장조사등 경영컨설팅관련 업무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기술개발보다도 어려운 것이 創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이나 투자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 창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 알찬 회사를 설립토록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韓國벤처相談은 이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컴퓨터를도입, 업무의 전산화도 시도하고 있다.

기술보유자와 투자자의 관리는 물론 투자정보관리에 능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도입할 계획인 투자회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적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가 운영할 투자회원제는 창업희망자들이 가입회비를 내고 희망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시제품 개발실도 마련해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金사장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산업사회에서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상담회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연락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의 2.

전화 783—0517. 〈♧〉

(案) 發明品企業化推進審議委員會 運營 (內)

特許廳告示 第86—1호에 의거 本會는 發明의 企業化 過程을 積極 支援함으로써 優秀發明의 사장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發明意慾을 振作시켜 技術開發을 通한 國家産業發展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發明品企業化推進審議委員會를 아래와 같이 運營하고 있아오니 發明人들의 많은 活用바랍니다.

⊙아 래⊙

1. 目 的

發明의 企業化 과정을 積極 支援함으로써 優秀發明의 사장화를 防止함과 동시에 發明意慾을 진작시켜 技術開發을 통한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함.

2. 機 能

1) 發明의 企業化 可能性 검토.
2) 企業化支援機關(團體)과의 연계를 위한 推薦.
3) 發明需要業體와 연계를 위한 技術評價 및 實施斡旋.

3. 支援對象

1) 特許法, 實用新案法에 의하여 登錄되었거나 出願중인 發明및 考案.
2) 소멸된 發明및 考案.

4. 申請節次

1) 所定의 申請書 작성에 의거 年中수시로 申請 接受함.
2) 專門機關에 發明의 技術評價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費用은 申請者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케 함.

5. 評價方法

1) 技術性 및 關聯技術에의 파급효과
2) 市場性(시장규모, 타상품과의 대체성 등)
3) 製品의 추정예정가격 및 수지전망.
4) 輸入代替 및 輸出展望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 (557—1077.8)로 問議바랍니다.